# 말씀은 실천하라고 있는 것이다

- 작성일: 2010년 7월 7일 (수) 오전 9:02
- 작성자: 이선진 (분당 제일교회, 평화 오케스트라 첼로)

[주님께 여쭈었습니다.
"사랑하는 주님, 말씀 중에 주님의 고통과 심정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, 말씀으로 깨달은 것 만 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까? 말씀으로도 주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 슬프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지 않습니까?"
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나의 말씀은
나와 주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놓은 결실체이긴 하다.
허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을
직접 실천하지 않는다면
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
너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.

한계 없는 성장은
실천으로 하는 것이다.
또, 직접 몸으로 부딪혀본 사람은 그 실전 감각이 뛰어나
나의 사명자로 쓰이기도 하노라.
그러나 말씀만 읽고 실천하지 않은 자들은
아무리 아는 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
막상 실전에 투입되면
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기력 하노라.
그래서 실천해야 한다.

소심한 성격이든 대범한 성격이든 너나 할 것 없이
실천은
어느 누구에게나 스승이 되노라.
마치 너희 선생이
실천에 기반을 둔 말씀으로 너희를 길렀듯,
너희도 말씀을 들었으면
실천을 하여라.
어떻게 하면 실천을 잘 할 수 있을지 써놓은 것이
말씀 아니겠느냐.
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놓았고
그 결과에 대해서도 적어놓은 것이노라.
허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겠느냐.

너희가 요리책을 보며
어떤 요리법에 대해 알았을지라도 그 방법을 써서 요리를 만들지 않으면
그 요리책이 무슨 소용이겠느냐.
총 다루는 방법만 알고
총은 안 써보면 무슨 소용이겠느냐.
이처럼 실천은 필수적이노라.

누누이 강조한 실천,
그때마다 찔끔찔끔 실천하다 그만두니
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.
실천은 평생이다.
마치 회개가 평생 해야 하는 것처럼
실천도 마찬가지이니라.

실천은 약 봉투 속의 약과도 같으니라.
약을 먹기 위해
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약 봉투까지 같이 사는 것이지
약 봉투 그 자체가 필요하여 사는 것이냐.
잘 깨달을지어다.
나는 실천을 중심하지 않으며
말씀만 중요시하는 자는
유대인처럼 보노라.
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이 약하였느냐. 아니지 않느냐.
그들은 그 시대 말씀에 있어서는 완전히 통달한 전문가들이었다.
허나 무엇이 부족하였느냐.
바로 실천 아니더냐.

섭리는 실천을 중심한
사랑의 종교가 되어야 하느니라.
선생이 그러했듯, 내가 그러했듯
너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하노라.

나는 그러했다.
나는 내 하늘에서의 지위는 완전히 잊은 채,
길바닥에서 전도하며 돌아다녔으며
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지 아니하였느냐.
그와 같이 너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.
그래야 진정 나의 신부라 칭함 받을 수 있다.
나는 행하는 신부가 참으로 좋다. 왜냐하면 선생처럼 될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지.
내가 선생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느냐.
그는 제자들에게 일을 떠맡기며 나 몰라라 하는 자가 아니니라.

**오직 주 사랑으로 솔선수범하여  자신이 먼저 행하고**
**제자들과 같이 행하였노라.**
**그래서 본받을 만하지 않더냐.**
**나와 같이 실천에 기반을 둔**
**사랑의 의인 아니더냐.**

**나는 그런 자가 필요하도다.**
**실천하는 자 한 사람이**
**말씀만 중요시하는 자 백 명보다 훨씬 낫다.**

**그러니 섭리야,**
**너희 각자도 실천에 기반을 둔 사랑을 보여 다오.**
**그러면 그 행한 값대로**
**나는 너희를 내 주관권 안에서 잘되게 해줄 수 있노라.**
**알겠느냐.**
**그럼 안녕, 나 주 예수가.**